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7. 15.(수)

국립대학병원 임상·연구·교육 기능 체계적 육성,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진과 현장간담회 개최

- 국립대학병원 육성 로드맵 공유 및 서울대학교병원 역할 강화 필요성 설명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7월 15일(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교수진 대상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립대학병원 육성 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립대학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 배경과 향후 로드맵*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육·연구 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

* 「국립대학병원 임상·연구·교육 종합적 육성방향 발표(6.15.)」

정부는 국립대학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은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교육과 연구 등 대학병원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역량 강화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임상 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역량을 견인하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의료혁신을 통해 부족한 지역의료 자원을 보완하는 등 국가 의료체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국 단위 거점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세계적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 인력 확보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연구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병원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I 시대 국가 의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향도 함께 공유하였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엄중한 지역 필수의료 위기 속, 국가 최고 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라며, “정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세계적 수준의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강화된 역량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라고 밝혔다.

또한, 장미란 교육부 의대혁신지원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병원으로서 교육·연구·진료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라며,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병원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044-202-2530)
		담당자	사무관	이재혁 (044-202-2531)
			주무관	반세현 (044-202-2537)
담당 부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혁신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배효진 (044-203-6981)
		담당자	서기관	이종근 (044-203-6954)
		담당자	주무관	김혜진 (044-203-6946)